글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혼례의 불 / 성스러운 결합을

화촉을 밝히다 흔히 혼례를 '화촉지전(華燭之典)' 이라든가 '화촉동방(華燭洞房)' 으로 부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주례사를 통해서나 청첩을 통해서 흔히 듣고 보는 어휘이기도 해서 그저 결혼과 관련된 말이려니 하고 넘어갈 뿐 딱히 따져보지 않는다.

화촉지전은 말 그대로 '화촉의 잔치' 이다. 그야말로 결혼식을 일컫는 말이다. 화촉동방의 화촉은 빛깔을 들인 밀초를 가리키고, 동방은 본디 침실을 가리켰으나 신랑, 신부가 꿈같은 첫날밤을 치르는 신방(新房)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므로 화촉동방은 '빛깔을 들인 밀초를 밝힌 첫날밤의 방' 이라는 뜻이 된다.

너나없이 관심 있는 그 '첫날밤' 이니 좀더 자세히 풀어보자. 화촉은 곱게 빛깔을 들인 밀초다. 그러니까 첫날밤에는 신방에 밀초를 밝히고, 신랑이 신부의 옷을 벗기기까지 이를 켜둔다. 사극에서나 봄직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신방을 엿보는 뭇 사람들의 시선을 거두고 부끄러워하며 고개 숙인 신부 앞에서 촛불을 끄는 신랑의 모습이 바로 화촉동방의 모습이요, 우리네 혼례식의 본디 모습이었다.

화촉지전이나 화촉동방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혼례식과 불의 관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첫날밤을 치르는 그 시간이 밤이니 전기시설이 없던 시절에 불을 밝히려면 등잔불이나 촛불이 있어야 했고, 소중하고 귀한 잔칫날이니 값 비싸고 화려한 밀초를 썼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법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도 순진하다. 민속이란 삶의 물질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정신과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 혼례식을 치르던 대낮의 초례청에도 촛불을 밝혔다는 사실에 이르고 보면, 화촉을 '첫날밤의 촛불' 로만 이해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화한 예식장에도 마찬가지다. 비록 전기로 밝히긴 했지만 '촛대형 전깃불' 이 등장하는 예식장, 이는 단순한 장식일까 조명일까.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 결혼식에서도 촛불이 등장한다. 이를 보면 촛불이 단순히 불을 밝힌다는 조명 효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촛불은, 아니 불은 혼례와 뗄래야 뗄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혼례(婚禮)다. 혼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집단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성에 대한 독점적 자유의 허용과 이에 대한 공증적 절차이기도 하다.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자유와 허용을 인증하는 사회적 통과의례인 셈이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이제 너희 남녀는 두 의지에 따라 성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는 선언이다. 따라서 혼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큰 일(大事)' 로서, 여러 가지 관습적 가치관이 굳어져 하나의 풍습으로 이어오고 있다.

위하여 촛불을 켜다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 된다. 현명한 독자는 이쯤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알아차릴 것이다.

요즈음 예식장에서 행해지는 혼례식 식순 가운데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촛불 붙이기' 라는 순서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신랑 · 신부 양가의 어머니들이 나란히 등장하여 단상에 놓여 있는 청색과 홍색의 초에 불을 붙인다. 신랑의 어머니는 청색초에, 신부의 어머니는 홍색의 초에 정성스럽게 두 손을 받쳐 불을 붙인다.

요즈음 사람들은 이 풍경을 낯설어 하지 않지만 실은 전통 혼례에서도 불을 붙였다. 초례를 할 때 신랑, 신부가 마주한 가운데 상을 놓는데, 이를 교배상(交拜床)이라 한다. 이 상 위에 놓인 촛대에 불을 붙이는 순서가 있다. 이러한 '촛불 밝히기' 를 두고 주례는 좋은 소재를 만난 듯, 품위 있게 말하곤 한다. 그런 주례사는 제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촛불은 자기 몸을 사르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야말로 사랑의 화신이지요. 이 촛불처럼 신랑은 신부를 위해, 신부는 신랑을 위해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이것이 이 촛불이 주는 의미입니다.

백 번 옳은 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사다. 그런데, 과연 혼례의 촛불이 이와 같은 합리적인 해석만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일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혼인하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혼인하다는 말의 혼(婚)은 계집 녀(女) 자와 어두울[밤] 혼(昏) 자가 합쳐진 글자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여자가 저녁에 큰일을 치르다' 라는 뜻이다. 여자가 저녁에 치르는 큰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성지합(二姓之合)이다. 그래서인지 옛 책에서는 혼례를 '婚禮' 가 아닌 '昏禮' 로 적고 있다. 「예기」에서도 혼례를 '昏禮' 라 적고 있으니, 이상하기도 하다. 그런데 글자가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추적하면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다.

혼(昏)은 낮인 양(陽)이 지나고 밤인 음(陰)이 온다는 속뜻을 지니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밤을 가리키는 것이니, 昏禮는 결국 '밤에 행하는 예식' 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긴 한데, 실은 원래의 혼례가 밤에 이루어진 사실을 반영하는 말이다. 고대의 혼례가 밤에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혼례를 밤에만 하는 부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억지는 아닌 것 같다. 예컨대 남미 지역의 어떤 부족은 밤이 시작되는 저녁에 혼례식을 갖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혼례의 본디 한자가 昏禮라는 사실과 낮에 혼례를 하는 동안에도 촛불을 밝히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옛날에는 결혼식이 음의 시간인 밤에 이루어졌다

결혼식을 밤에 했던 까닭에 대해 우선 음양사상이나 종교적 심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성싶다. 결혼식이 이루어졌던 밤은 어떤 시간인가. 밤은 일상적 시간이 아니다. 낮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인간의 활동이 그치는 시간이다. 도둑을 일컬어 밤이슬 맞는다고 했듯이 그런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밤에는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끝난다. 옛 사람들의 관점에서 밤에도 일상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도둑이나 여인네를 찾아 담을 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귀신이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요동하는 귀신이며, 새벽닭이 울면 허겁지겁 떠나야 하는 귀신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밤은 낮과는 다르다. 제사나 무당의 굿이 밤에 행해졌던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신과 조상을 부르고 복을 바라는 제사와 굿이 어찌 일상적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낮과 밤을 나누어 성(聖)과 속(俗)이라는 엘리아데의 2분법을 빌어보자. 낮이 일상적 시간의 속(俗)이라면, 밤은 비일상적 시간의 성(聖)이다. 따라서 제사와 굿을 어느 시간에 해야 옳은가. 그것은 세살박이 어린아이도 안다. 성스러운 밤이다. 고대의 혼례식이 밤에 이루어졌던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음양으로 따져도 이치는 같다. 밤이 음의 시간이라면 낮은 양의 시간이다. 음이 어둠이라면 양은 밝음이다. 해가 있으니 밝고, 해가 졌으니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음의 시간에 음기가 가득하고, 양의 시간에 양기가 가득 차는 법이다. 또 남녀를 음양으로 나누면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며, 결혼은 음과 양의 결합이다. 양의 처지에서 볼 때, 가득한 음기를 맞아야만 튼실한 결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자손을 많이 볼 수 있다. 양기가 충만하되 음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곧 하루 해가 지난 저녁이다. 이것이 밤에 혼례를 했던 고대 풍습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결혼식을 밤에 했다면, 불이 없는 가운데 예식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법. 게다가 도둑 혼례도 아닌데, 불을 없애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어둠을 밝히는 최소한의 빛, 그것을 위해서 불이 필요했고, 이러한 관습이 낮으로 바뀐 혼례식에서도 등장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비록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 그 공간과 시간은 밤이라는 상징적인 뜻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다! 물론 추론이 지나치면 흰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촛불의 본디 뜻을 헤아리자니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게다. 아무튼 이는 촛불이 지닌 효용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해석인 것 같다.

촛불을 켜는 행위는 민속학적으로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무당이 하는 굿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위하는 '넋건지기굿'이 있다. 이 굿에서 '부정굿'이 벌어진다. 부정굿은 무당이 백지에 불을 붙여 휘두르면서 굿당 안을 청소하듯 돌고 나서 바가지에 든 잿물과 맑은 물을 신칼로 찍어 굿당 주위에 뿌리는 절차다. 그야말로 부정한 것, 삿된 것을 없애는 굿거리다. 이는 불과 물이 삿된 것을 태우고 씻어내어 없앤다는 정화(淨化)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성 싶다. 굿당 안에 널브러져 있는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태워냄으로써 신이 좌정할 수 있는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말이다.

더럽고 삿된 것을 태우고 성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상징 전통 혼례에서 낯설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설 때 하는 행동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 충청지방에서는 신부집 대문 양편에 짚불을 피워놓고 신랑을 맞는데, 신랑을 태운 가마꾼들이 이 불을 바로 끄면서 대문을 들어선다. 함양지방에서는 짚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그 위를 넘고서야 들어갈 수 있다. 장수지방에서는 일진이 나쁘거나 살(煞)이 꼈을 경우, 신랑 좌우에서 횃불을 켜들고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기억 속의 일이 되고 말았지만 이처럼 지방마다 다른 독특한 신랑맞이가 있었다. 신랑을 맞을 때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신랑의 몸과 주위에 있을지도 모를 사악한 것, 더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한 것까지 태워 없앤다는 소박한 종교심성 때문이다.

신부의 몸에 있을지 모를 삿된 것은 어떻게 없앴을까. 신랑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양지방에서는 신부가 신랑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 세워놓은 짚불을 신부가 몸소 뛰어넘었다. 안동지방에서는 신부를 태운 가마꾼들이 짚불을 차면서 들어갔다. 이 역시 신랑이 했던 신부집 들어가기의 행동과 동일하고 그 뜻 또한 같다.

이처럼 불은 새 사람을 맞아 새 가정을 차리는 신랑 신부의 부정과 사악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주술적 도구 구실을 한다. 이런 뜻에서 혼례식에 불이 등장하는 것이다.

혼례식의 촛불은 더럽고 속되며 삿되고 부정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성(聖)스러운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스러운 사건으로 전환하는 상징이 된다. 알다시피 '낮과 현실'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은 고통과 고난이 늘 일어나는 속된 세계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듯 태워버릴 필요가 있다. 이를 불로 태워야만 혼례식장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며,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혼례식이야말로 성스러운 완전한 결합이 된다. 그래야 한 쌍의 결합은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랑 신부의 어머니들이 혼례가 시작하기 전에 단상의 촛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고와 그에 따른 소망이 담긴 소박한 행위인 셈이다.

모닥불과 작은 촛불이 지닌 의미가 이러하기에 혼례식에서도 촛불은 중요시되며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풍속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속뜻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촛불이 나쁜 것을 태우고 삿된 것을 쫓아내어 깨끗하게만 해 준다면, 이제 혼례식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를 비롯하여 나라 구석구석에도 촛불을 켜놓고 싶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히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 주위에도, 내부에도 온통 촛불로 밝히고 싶다. 그러면서 개인의 평강과 나라의 강건함을 빌고 싶다.

훠이 – 물렀거라!